

올해를 빛낼 광주·전남 스타

‘골프여왕’ 신지애



“신인왕은 다시 할수없지만 4관왕은 올해도 꼭 해야죠”

3승을 한 신지애가 벌어들인 총 상금은 3억7천405만원이며 라운드당 평균타수도 69.2타로 국내 최초로 60대 타수를 기록했다. 지난 1999년 제정된 KPGA대상에서 3관왕(대상·신인상, 상금왕)이 나온 적은 있지만 5관왕이 배출되기는 처음이다.

한국 골프사를 다시 쓴 ‘작은 거인’ 신지애는 선행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해 ‘작은 천사’라는 애칭을 얻었다.

지난해 5천여만원에 달하는 불우이웃돕기 상금을 쾌척 하는 등 선행에 앞장 서 왔고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자신 골프클리닉을 여는 등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골프실력과 견줄 만하다. 어려운 환경에서 운동을 했던 신지애는 프로로 전향 하기 전 아버지 신재삼씨와 함께 좋은 성적을 내면 반드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상금을 쾌척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필리핀으로 전지훈련을 떠나기 하루 전 신지애 프로를 서울 매니지먼트사에서 만났다.

“어프로치·비거리 늘리기에 주력”

귀여운 미소와 앳된 여고생 모습은 그대로였지만 한국최고의 여자골퍼로서 무게감과 함께 퍼머머리, 손톱에 칠한 매니큐어는 프로로서 변화를 느끼게 했다.

아마추어에서 프로 전향 한 뒤 가장 큰 변화에 대해 신지애 선수는 용인에 아버지와 두 동생 지원, 지훈과 함께 편히 쉴 수 있는 50평 자리 아파트를 장만했다는 것을 꼽으며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다. 어머니를 교통사고로 잃고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운동을 했던 신지애로서는 가장 실감나는 변화인 셈.

올 시즌 4억원에 가까운 상금을 벌어들인 신 프로의 용돈은 얼마나 될까? 우승하면 아버지로 부터 100만원의 용돈을 받는 것 외에는 용돈은 없다. 이 돈은 주로 동생들과 함께 지내는데 쓰여진다. 신 프로는 “투어를 진행하다 보면 돈을 쓸 기회가 없기 때문에 별로 용돈이 필요치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신 프로가 꼭 갖고 싶은 것이 있다. 아버지한테 약속도 받았다. 자신처럼 작지만 강한 성능을 자랑하는 ‘자동차’를 갖는 것이다. 우승하면 사주겠다던 아버지가 아직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올 시즌 첫 우승을 한 후 반드시 사겠다고 웃었다.

신 프로는 지난 시즌 15개 대회서 우승 3회, 준우승 5회 등 2006레이크월스 클래식을 빼곤 모두 TOP10에 이름을 올렸다. 18세 여고생 으로서는 대단하다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는 성적이다.

신 프로는 이같은 칭찬에 대해 담담한 표정이었다. 최선을 다했고, 결과가 좋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지애는 올 해도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칫 슬럼프에 빠지기 때문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나면 결과는 반드시 얻어진다라는 확고



2006년 5천여만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쾌척한 신지애(하이마트)가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삼성서울병원 이종철 원장에게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의 치료비에 써달라며 1천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한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신인왕은 다시 할 수 없으니깐 4관왕은 다시 해야죠”라며 욕심을 감추지 않았다.

신 프로는 요즘 어프로치와 비거리를 늘리기 위한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파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주변 어프로치 기회가 없어 어프로치 감각을 보완하고, 올 시즌 단 한차례의 이글을 기록하지 못해 거리를 더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신 프로는 골프이야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만큼 자신의 실력을 신뢰한다. 특별히 교정의 필요성을 느끼기 전에는 스윙이나 기술적인 부분을 바꾸지 않겠다는 고집이다.

“시험前 장어·홍삼 먹고 힘 내죠”

2008년까지 국내에서 활동해야 하는 의무규정 때문에 LPGA진출은 생각지 않고 있다. 다만 LPGA 직행 티켓을 확보할 수 있는 ‘코오롱 하나은행 LPGA챔피언십’에서 우승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그렇다고 이 대회에서 반드시 우승을 해야겠다는 조금함은 없다고 말했다. 신 프로는 게임 3~4일전부터 고기를 먹지 않는다. 몸이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대신 과일과 장어, 홍삼을 먹고 시험전에 폭자는 것으로 컨디션을 조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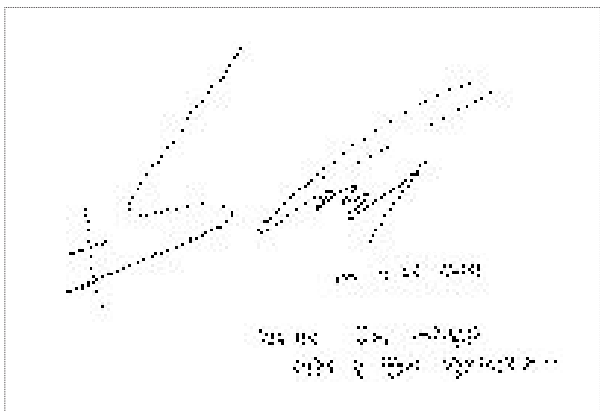
대회에 특별한 징크스는 없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와의 대화는 게임에서 가장 큰 후원자이자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어머니를 교통사고로 잃고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성공시대’를 활짝 열고 있는 신지애 프로가 2007년에는 또 어떠한 신화를 써 나갈지 기대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007년도 지난해만 같아라!”

프로골퍼 신지애(18·하이마트)의 2007년 포부다. 새해에는 지난해 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지만 신지애의 2006년을 돌아보면 이러한 표현이 가장 적합하다. 합평골프고등학교 3학년인 신지애는 2006년 여자프로무대에 데뷔하자마자 국내 선수로는 사상 처음 단일시즌 상금 3억원을 돌파하고 5관왕까지 하는 신화를 썼다.



노총각장가 보내고 사라진 여성대리기사 이야기!

노총각장가 보내고 사라진 여성대리기사 이야기! 노총각장가 보내고 사라진 여성대리기사 이야기! 노총각장가 보내고 사라진 여성대리기사 이야기!

☎ 060-700-3658

30만원대 히터가 무릎 꿇었다! 독일형 베커 벽난로형 히터!

가격, 난방비, 소음, 냄새, 그걸음까지 30만원대 히터를 능가하는 벽난로형 히터가 99,000원

독일형 베커 벽난로형 히터

가격가 99,000원 (구매가 129,000원) 문의전화 080-717-5950